

# “꿈의 원인 갈애” ... 멸도의 길 제시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불교교리-전범론

부처님은 바라나시 교외에 있는 사슴 동산(鹿野園)에서 이집의 동료였던 다섯명의 수행자들에게 최초의 설법(轉法輪)을 열었다. 부처님은 여기서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생활을 비참하고, 고졸하지 못하며, 물질주의적이고 무가치하며, 분별없는 삶이므로 피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고행(苦行)의 생활 역시 무가치하며, 고통스럽게 기만한 분별없는 삶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부처님은 양극단을 여윈 중도(中道)를 강조하고 사성제(四聖諦, 성스러운 네가지 진리-苦集滅道)와 팔정도(八正道)를 가르쳤다.

네가지 진리란 첫째 생노병사(生老病死)가 모두 '고(苦)'라는 것. 둘째 고의 원인은 집착해서 환희를 구하려고 하는 '망집(妄執)'에서 온다는 것. 셋째 그러므로 고의 '소멸(消滅)'은 망집으로부터의 해탈과 무애(無礙)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넷째 고의 소멸로 이르는 '길(道)'은 특별한 팔정도로 부르는 8가지 실천규범이 있다는 것이다.

도이센(Duisen)은 녹아원에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명했으며, 사성제의 교리는 이후에 다루어져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케른(Kern)은 사성제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의약치법을 우주적 진리의 문제에 적용시킨 것으로 보았다. 죽고·집·달·도는 환자의 발병, 진단, 치료, 처방요법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다.

고(苦)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진실로 존귀한 '고'는 재는 다음과 같다. 고의 원인은 갈애(渴愛, Trishna)인데 이것은 감각적인 기쁨과 탐욕을 수반하는 윤회전생을 전전하며 여기저기 집착해서 쾌락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향락적 욕망의

구하려는 망집과 개체의 생존에 탐닉하는 망집과 생존의 영원함을 바라는 망집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갈애는 소편 하우어가 '물자체(物自體)'로 본 '의지(意志)'에 해당하며, 베르그송의 '생의 충동(élan vital)'이나 버나드쇼의 '생명력(生命力, life force)'도 같은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과 소편하우어는 욕망(갈애)을 부정한 반면, 베르그송과 쇼는 생의 충동과 생명력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고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한다. "진실로 존귀한 '달' 도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망집을 완전히 벗어난 소멸로서 버리고 떠나는



부처님은 성도후 녹아원에서 이집의 동료 다섯비구에게 4성제와 8정도의 법을 설하면서 설법을 시작했다. 사진은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들은 녹아원 영불탑(迎佛塔).

## 대상에 현혹되지 않을 때 욕망으로부터 해방 팔정도는 열반 이루기 위한 중도적 실천규범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그 불은 貪火·瞋火·痴火이다”

정도는 학자들이 위해 여러가지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앞의 네가지는 신앙, 이해, 의견, 지식으로, 뒤의 네가지는 주의, 집중, 경계, 기억으로 풀이된다. 특히 쾨펜은 마지막의 '기억'이란, 신도가 매일 부처님의 모범적인 행위를 기억하는 예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중'의 경우도 높은 경지인 삼매경(三昧境)으로 풀이된다. 이런 다양한 규범들은 자칫 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하나의 축점으로 수렴된다. 팔정도는 모두 열반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기 위한 실천과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루베리에서 천명의 수행승에게 행한 '불의 설법'도 유명하다.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바라보는 시선도, 보이는 대상도 불길 속에 타고 있다. 대상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정도,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길 속에 타고 있다. 어떤 불길이 그것들을 태우는가? 그 불은 탐화(貪火, 욕망의 불)이며, 진화(瞋火, 증오의 불)이고, 치화(痴火, 무지의 불)이다. 또한 생, 노, 병, 사, 불만, 고통, 절망, 후회의 불길이다" 시작에 이어 계속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의식도 불길 속에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후 다음의 설법이 이어진다. "이것을 잘 깨달은 현자나 교리를 진실히 실천하는 신도는 보이는 대상에 현혹되지 않으며, 대상과의 접촉을 통한 감정이나 지각에도 현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통에도, 즐거움에도 혹은 그 어떤 것에든 현혹되지 않는다" 역시 시각에 이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 설법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이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 현자와 신실된 교도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를 해탈로 이끌 것이며, 그때 그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제 더 이상 태어 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의무를 완수하고 성화(聖化)되었다. 여기 아래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안다'."

이 세상이 덧없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헤라클레스도 불의 상징을 사용하곤 했다.

우루베리에서 천명의 수행승에게 행한 '불의 설법'도 유명하다.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바라보는 시선도, 보이는 대상도 불길 속에 타고 있다. 대상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정도,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불길 속에 타고 있다. 어떤 불길이 그것들을 태우는가? 그 불은 탐화(貪火, 욕망의 불)이며, 진화(瞋火, 증오의 불)이고, 치화(痴火, 무지의 불)이다. 또한 생, 노, 병, 사, 불만, 고통, 절망, 후회의 불길이다" 시작에 이어 계속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의식도 불길 속에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 후 다음의 설법이 이어진다. "이것을 잘 깨달은 현자나 교리를 진실히 실천하는 신도는 보이는 대상에 현혹되지 않으며, 대상과의 접촉을 통한 감정이나 지각에도 현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통에도, 즐거움에도 혹은 그 어떤 것에든 현혹되지 않는다" 역시 시각에 이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 설법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이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 현자와 신실된 교도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를 해탈로 이끌 것이며, 그때 그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자유롭다 이제 더 이상 태어 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의무를 완수하고 성화(聖化)되었다. 여기 아래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안다'."

이 세상이 덧없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헤라클레스도 불의 상징을 사용하곤 했다.

번역 :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약수를 뜨겁다.  
일요일 오전 10시쯤이다. 빈 물통을 들고 금화산을 오르며 낮 익은 사람들과는 인사도 나눈다.  
층층로 집에서 금화산을 오르는 길은 도시 산마음의 굽이길이다. 아파트 단지도 지나고 주택가도 지나는 길이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가 아닌 곳이다.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심호흡으로 들이키며 약수를 향해 간다. 연대 이대 총대가 있는 신선 일대와 독립공원과 인왕산 무악재를 비롯 홍제동 일대를 조망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나는 약수통을 들고 이 간편한 산행을 즐긴다. 무엇인가 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이다.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사색에 몰두한 세상이었다. 건강보다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회, 이미 사회가 병들어 버린 이후 절실히 깨달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정광수 <해동문화주간>



할 것도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화두를 들기로 했다. 화두라고 하지만 선방 수좌님들처럼 본격적으로 탐구할 만큼은 못되는 입장이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사유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화두(주제)중 하나가 '무(無)'이다. 물론 무란 선택권이 가장 많이 드는 화두이다. '없다'는 의미 그것은 문학의 시작이고 인간 사유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미당(宋堂) 서경주 선생의 시 '무의 의미'를 되뇌이며 나는 '무'가 화두를 더듬는 것이다. 이 시의 무와 관련 김구용 선생은 "서양의 무는 유에 대한 무로써 생사(生死)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동양

## 일요일마다 법당찾아 화두 챙겨

“교사의 언행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교사의 행동도 교과서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내 몸이 건강하고 정신과



의 무는 존재 이전에 시작되어 존재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의 현실이며 미지의 존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동양의 무는 '절대무'인 것이다.

법당에 앉아서 나는 사랑(慈量)으로 문학의 주제를 생각하고 논리의 줄거리를 생각하지만 마음

만은 분별이 없는 곳에서의 진리를 추구한다. 분별이 있는 곳은 어릴 수 없는 고통의 자리다. 그러나 쉽게 분별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저 꾸준한 사유의 자리를 파고들어 나의 생각자리를 응시하는 수밖에.

나의 화두가 '무'이든 다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리라. 내 삶의 한 모습으로 오롯이 법당에 앉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법당처럼 생각의 너울을 단출히 정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매주 일요일 오전의 그 산행과 사색으로 나의 신심은 살아있다. 마음 속에서 물결치는 삶에대한 희열과 진리의 동경이 신심일 것이다. 나는 그 신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일요일마다 법당 찾기에 조용히 앉는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이런 세상살이 생각만

만은 분별이 없는 곳에서의 진리를 추구한다. 분별이 있는 곳은 어릴 수 없는 고통의 자리다. 그러나 쉽게 분별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저 꾸준한 사유의 자리를 파고들어 나의 생각자리를 응시하는 수밖에.

나의 화두가 '무'이든 다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리라. 내 삶의 한 모습으로 오롯이 법당에 앉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법당처럼 생각의 너울을 단출히 정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매주 일요일 오전의 그 산행과 사색으로 나의 신심은 살아있다. 마음 속에서 물결치는 삶에대한 희열과 진리의 동경이 신심일 것이다. 나는 그 신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일요일마다 법당 찾기에 조용히 앉는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이런 세상살이 생각만

## 제기 불교 기초교리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절에 수심년을 다녔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많으시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무엇한 불교판이 없이 맹목적으로 그려보던 불보살님의 모습을 교리와 경전을 배우면서 참된 진리를 설하신,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신 부처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기초교리부터 경전까지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워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 실천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와 무종교인·불교가 어렵다는 분을 환영합니다.  
· 개강일시 : 1996년 6월 25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강의 · 일별(주부) : 오후 2시부터(선착순 50명)  
· 오후반 : 저녁 7시부터(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  
· 교육내용 : 불교기초교리·예절·의식·사원구조·중요경전 등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2-16호 한정 B/D 5층  
한국불교 백련사 포교원 원장 박지상 합장  
TEL: (02) 547 - 8268, 8269

## 생식

자연의 정기를 가득 담은 生命食  
대자연과 선사인류가 가르쳐준 生食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正食

- 생식 산사에 계신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께
- 생식 어려운 생식을 쉽게 하는 방법
- 생식 食食과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생식
- 생식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저연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새로운 경험의 생식
- 생식 맑은 정신과 건전한 육체로 정진할 수 있는 무공해 생식

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과일 등 30여종의 원료를 동결건조시켜 어떠한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쉽게 1회용 포장한 분말제품입니다.

불자생식동호회  
전화 : 032-655-6111/3

## 출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집중력, 판단력, 정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들었습니다.

\* 세계 유일인 보석 옥산가 백옥 \*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신경통 93.8%, 고혈압 93.8%, 당뇨 93.8%, 변비 93.8%, 잇몸질환 93.8%, 학습능력 93.8% 증진  
대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떨림, 소화불량, 원자력 대상으로 중환자실 환자를 치료 시켜 임상실험 결과 84% 증진  
효과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2.17)

서울시 중구 유지로 2가 50번지 (브링방 벽화길 지하상가 입구) 777-0105  
吳 昊 宗 介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자님들의 사랑으로 이자임 결혼연구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전화비 명목의 적은 비용으로 96년 4월부터 행사기간을 정하였던바 6월 30일까지 행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초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가슴으로 스미는 계절입니다. 지성을 겸비한 청춘 남녀의 근사하고 멋스러운 분들이 기다립니다.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구비서류 : 초혼남녀 주민등록 등본·출입증명서, 사진(각1통)
- 재혼남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입증명서, 사진(각1통)
- 학력(남) : 전문대졸·대졸이상 (고졸은 특별상담)
- (여) : 고졸·대졸이상
- 연령(남) : 23세~70세 까지
- 초재혼 여(국졸, 중졸 만·35세 까지)
-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문 :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 가시는 분들에게 행복의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특별 상담)
- 여 학력제한없음(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불신)  
농협은행권리부-112-01-02121 예금주 이자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 영리전화: (02)634-4910-2